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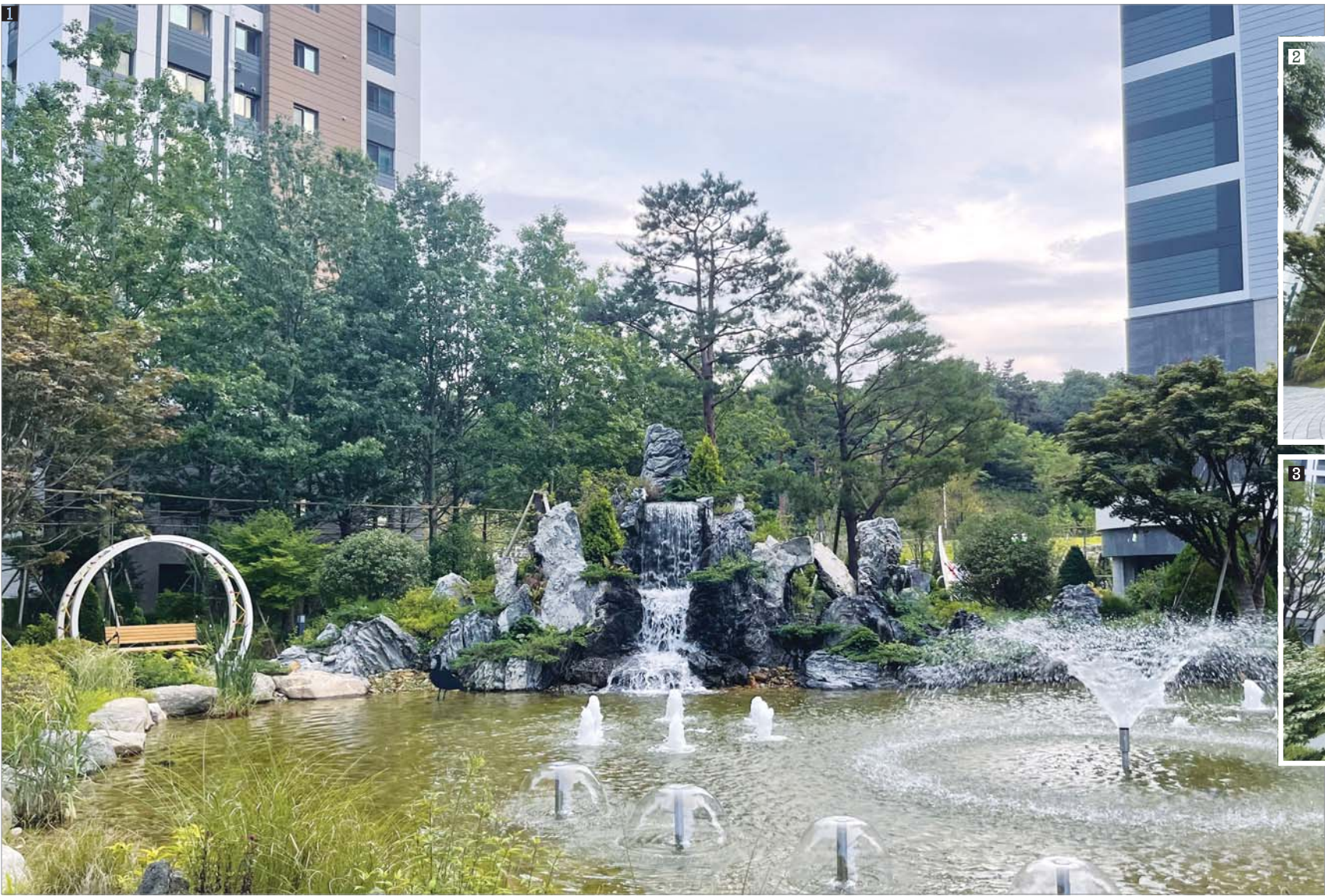


윤동한 콜마 창업주
경영권 분쟁
법정 첫 출석
L1

metro®

Life

리만코리아
화장품 원료
차별화
L2



1 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생태 연못.
2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장수목' 느티나무.
3 인공폭포를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석가산.

푸른 나무 따라, 은빛 조각상 따라... 도심 속 정원 산책을

아파트의 미학(美學)

비봉 우미린 더 퍼스트

최근 찾은 경기 화성시 비봉면 '비봉 우미린 더 퍼스트'.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수인분당선 어천역 1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고 15분 가량 걸렸다.

두툼한 석재 마감을 입은 출입구 프레임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남기며 도시 속 성문처럼 단지의 위용을 드러낸다. 게이트 상단에 새겨진 '우미린 더 퍼스트' 글자는 묵직한 구조물 위에서 은은히 빛나며 브랜드 정체성을 또렷이 각인시킨다.

입구 왼쪽에는 '린(Lynn)' 로고가 단정히 자리해 있다. 검은색 유리 파사드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로고는 절제된 배경 속에서 더 또렷하게 빛나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세련된 미감을 강조한다.

단지 주변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비봉나들목(IC)이 위치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비봉~매송 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바로 앞 화성로를 통해 화성시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향후 고속철도(KTX) 어천역(2026년 예정)이 개통되면 전국 곳곳으로 이동이 수월해진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바로 앞에는 청연중 학교가 위치해 있다. 인근에 신세계그룹이 약 4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2026년 착공 예정으로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 진행에 속도가 점차 붙어 수혜가 기대된다.

우미건설이 시공한 비봉 우미린 더 퍼스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총 798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국평' 전용 84㎡ 단일면적으로만 구성됐다.

단지의 중심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붉은 곡선 화단에 감싸인 느티나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위로 쭉 뻗은 가지와 단단한 수형은 마치 단지를 지탱하는 기둥처럼 서 있다. '장수목'이라 불리는 느티나무가 주는 강인한 기상은 고층 건물이 하늘을 찌르는 풍경 속에서도 또렷한 균형감을 이룬다.

정원에는 다양한 관목들이 층층이 배치돼 있어 사

차분한 외관과 어우러지는 세련된 조경
단지 중심엔 상징목인 '느티나무' 배치
다양한 관목 조성... 사계절 녹음 풍성해

물과 녹지 어우러진 생태연못·인공폭포
반려견 성향에 맞게 구획된 전용 놀이터
단지 풍경 담긴 은빛 조각상 등 볼거리도



산사나무 숲과 조화를 이루는 은빛의 원형 조형물.



김도훈 작가의 '균형'.

계절 내내 풍성한 녹음을 제공한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드리워진 그늘 아래에는 유려한 곡선형의 화이트 체어가 놓여 있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든다.

붉은 화단이 더해져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단지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도시의 거대한 외벽 사이에서도 이곳은 한층 부드러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강인한 느티나무와 정갈히 다듬어진 녹지, 그리고 여유를 위한 쉼터가 공존하며 단지 안의 '작은 숲'으로 완성된다.

생태연못은 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또 하나의 풍경이다. 분수와 폭포가 만들어내는 물소리는 도시의 소음을 가려내고 물안개처럼 퍼져 나가는 시원한 공기를 전한다.

투명하게 가라앉은 수면 위로는 노랑꽃창포, 물양귀비, 왕부들 같은 수생식물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어 연못이 단순한 조경 요소를 넘어 작은 생태계를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석을 거슬러 흐르는 인공폭포는 원목 다리와 어우러져 한국 정원의 정취를 연상케 하고 원형 벤치와 티하우스는 이 풍경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된다. 물가를 따라 난 산책로는 발걸음을 천천히 늦추게 하고 연못가에 앉아 바람을 맞으면 일상의 긴장도 조금씩 풀려나간다.

단지 안쪽에는 반려견을 위한 작은 놀이터가 마련돼 있다. '프리펫존'과 '중형펫존'으로 구획된 공간은 반려견의 크기와 성향에 맞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초록빛 인조잔디 위에는 장애물 점프대, 원형 터널, 슬라이드 기둥 등이 설치돼 있어 반려견들이 신나게 달리고 뛰어넘으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싼 짙은 녹지와 펜스는 외부와 구분되는 아늑함을 주고 견주들도 안심하고 반려견을 풀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카페린(Lynn)'과 하프코트 실내체육관,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장연습장,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마련된다. 특

히 카페린은 단지 한 칸, 붉은 벽돌 외벽과 흑백 스트라이프 차양이 어우러진 작은 공간이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고 이웃과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다.

단지 뒤편에선 하얗게 벗겨진 줄기가 줄지어 늘어진 자작나무 숲 길을 만났다. 희끗한 껍질에 햇살이 닿으면 나무마다 은은한 빛이 번지고 길은 마치 북유럽의 숲속을 옮겨온 듯한 청량함을 전한다.

단지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눈길을 끄는 원형 조형물이 나타난다. 은빛 거울 조각을 이어 붙인 듯한 이 구조물은 하늘과 나무, 건물의 빛깔을 고스란히 비추며 낮에는 풍경을 담고 저녁이면 조명과 어우러져 또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 단순한 원의 형태는 '순환'과 '영속'을 상징하며 주거 공간에 담긴 삶의 리듬을 은유하는 듯하다.

조형물 주변에는 낮은 관목이 둘러져 있어 작은 정원을 이루고 그 옆에는 다채로운 색채의 가구들이 배치돼 있다. 꽃잎을 닮은 파라솔과 삼각형 좌석은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 역할을 하면서도 단지의 풍경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김경아 작가의 'WAVE - 공간의 선율'은 유선의 부드러운 형태와 구획되어진 공간의 영역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됐다. 작품을 마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선사한다.

김도훈 작가의 작품 '균형'은 수많은 선과 면으로 공간을 균형 잡힌 형태로 조형화 한 작품이다. 직선과 직선이 결합된 기하학적 구조의 독특한 표면기법으로 선과 면이 겹겹이 쌓여 이루는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변화되는 표면의 입체적인 면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빛을 통해 다채롭게 빛나는 시각적 아름다움과 무한한 발전을 담아 공간적 조형미에 포인트가 된다.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호수를 헤엄치는 거대한 오리', '래서 판다 통나무 집' 등 동심 가득한 놀이요소는 아이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도한다.